

해남, 천혜의 조건으로 저고도 경제 드라이브 가속화

헬리콥터가 천천히 하늘로 오르면서 푸른 바다와 열대 해안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헬리콥터 관광, 패러글라이딩(滑翔伞), 스카이다이빙(跳伞), 열기구... 해남을 찾은 관광객들은 코코넛 나무, 푸른 바다, 모래사장외에도 해남의 하늘에 매료되고 있다.

해남 최대 스카이다이빙기지에서 삼아 탑핵(塔核) 스카이다이빙기지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그들은 부푼 마음으로 탑승을 기다리거나 스카이다이빙을 마친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삼아 탑핵의스트림스포츠클럽장은 명(張恩銘) 사장은 "기지는 고정익부터 헬리콥터까지 다채로운 스카이다이빙 패키지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로동절 연휴 기간 스카이다이빙 예약이 폭주해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평소보다 약 7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장은명은 저고도 관광이 새로운 관광 업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큰 인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당 기지에서는 연인원 1만명 이



5월 2일, 삼아 탑핵스카이다이빙기지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고 있는 관광객. / 신화넷

상이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했으며 올 1분기 방문자는 연인원 6,000명에 달했다.

중국 유일의 열대도서지역인 해남은 매년 300일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 가능 일수와 공중 관광 활동 시간 모두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저고도 관광 발전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적 환경도 저고도 경제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저고도 경제를 2년 연속 정부사업보고에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성 저고도 경제 발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4년—2026년)〉에서도 저고도 항공 관광 싸나리오 확장을 제시했다. 해구, 삼아 등 환도(环岛) 관광도로 연선 시·현을 지원하고 헬리콥터, 전동수직리착륙기(eVTOL), 플라잉카(飞行汽车) 등 저고도 관광 로선을 개설하는 등 저고도 관광의 형태 및 콘텐츠를 다원화시킬 방침이다.

해남 려유(旅遊)발전연구원 진요(陳耀) 원장은 앞으로 해남 환도 관광도로를 따라 저고도 관광을 적극 배치하고 관광도로를 중심으로 다차원적·립체적·산업종·심층 체험의 상품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남자유무역항 정책을 활용해 저고도 장비의 전시·판매·거래를 추진하고 저고도 장비 조립, 연구개발(R&D), 제조를 유치해 해남 특색의 저고도 경제 산업사슬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국가개발은행

동북지역 진흥에 523 억원 대출

국가개발은행이 올 들어 동북지역 지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개발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동북 진흥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523 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개발은행은 청정에너지 등 녹색 분야 중점 산업사슬, 첨단장비 선두기업 기술 개발, 길림성 곡물 생산 증대 등 핵심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수리 프로젝트 등 분야의 중장기 융자 및 금융서비스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을 촉진했다.

국가개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더 많은 금융자원이 인프라 건설, 산업 업그레이드, 과학기술혁신, 농업현대화 등 중점 분야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동북지역의 고품질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화넷

“꽃밭으로 놀러 오세요”

심양, ‘꽃놀이경제’로 지역 발전 모색

올봄 ‘꽃구경 여행’이 료녕성 심양시 문화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심양시원림식물표본원에 들어서면 꽃물결이 넘실대는 진달래표본구역이 눈에 띈다. 꽃을 보기 위해 하남에서 심양까지 찾아온 정주정(鄭秋淸)은 “최근 심양은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데다가 해빛도 좋다.”면서 “꽃바다 속을 거닐다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전했다.

심양 동탑원(東塔園)에서도 앓다투어 피어난 목련이 붉은 담벽, 하얀 담과 한데 어울려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봄이 오면 동탑원의 목련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동탑원에서 출시한 ‘백화제방’(百花齊放) 아이스크림은 백목련과 함께 큰 인기를 누렸다. “정원에 핀 꽃에서 영감을 받아 아이스크림 디자인에 백목련 등 요소를 가미했다.” 심양 동탑원 직원의 말이다.

/ 신화넷

현장에는 해당화·목련 등 꽃으로 장식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만개한 백목련과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꽃놀이경제’로 인기를 얻은 건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꽃들이 차례로 피어나고 있는 심양 고궁에는 치료(旗袍)를 입고 부채를 손에 든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꽃놀이경제’는 농촌 활성화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전 ‘춘전화사’(春田花事)라는 화훼 전시 행사가 심양시 심북(沈北) 신구에서 열렸다. 화훼예술전, 향토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 덕분에 12건의 주문 계약이 성사됐으며 연인원 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였다. 화훼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신화넷

안휘성, 촘촘한 충전 네트워크 구축

5월 1일 안휘성 황산시 호려(芦荔) 촌의 한 주차장. 절강성 항주시에서 온 려행객 정원(鄭媛)이 휴대전화로 충전대의 QR 코드를 스캔하자 화면에 “현재 출력은 120키로와트, 예상 충전 시간은 30분”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곳 옛 촌락에 와보고 싶었다.”면서 “출발하기 전에는 이곳에서 충전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완성차 + 부품 +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전체 산업사슬을 갖추고 있는 안휘성은 충전대를 중심으로 도시 및 농촌, 산업사슬 업스트림·다운스트림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건설해나가고 있다.

안휘성 남부—사천—서장성 도로를 따라 위치한 유명 관광지에는 모두 충전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충전소 간 거리는 30킬로미터를 넘지 않는다. 관광 성수기에 충전대 부족에 시달렸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관광지내 1,000여개 민박집에 충전대가 설치되어 신에너지차 운전자들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시켰다는 평가다.

/ 신화넷

관광지의 충전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전력망(国家电网) 동성(桐城) 시전력공급회사는 충전시설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 룽척항(六尺巷) 관광지는 주변 500미터내에 10대의 급속 충전대와 26대의 완속 충전대를 배치해 ‘5분 충전 서비스권’을 형성했다.

안휘성 신에너지차 산업클러스터 건설작업지도팀 판공실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안휘성의 충전대소는 81만 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61.4% 급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휘성은 각 시장주체의 충전시설 자원을 통합하고 성 전역에 통일된 충전 서비스 휴대전화 앱을 보급해 신에너지차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속한 충전 네트워크는 중요한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녹색 발전을 위한 ‘모세혈관’이다. 이처럼 확충된 인프라는 안휘성 남부 고촌에서 도심 상권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특색 문화관광타운까지 이어지는 녹색차량 행렬에 강력한 신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다.

/ 신화넷

남사자유무역시험구, 고수준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광둥성 광주시 남사자유무역시험구(이하 ‘남사시험구’)내 종합보세구 창고에서 광주세관 소속 남사세관 직원들이 수입 외인을 검사하고 있다. 프랑스 등지에서 온 이 레드와인은 세심하고 신속한 검사를 거쳐 ‘보세물품’에서 ‘비보세물품’으로의 전환을 마친 후 수많은 가정으로 배송된다.

60평방키로메터 규모를 자랑하는 남사시험구는 광둥성 최대 자유무역 시험구다. 이곳에는 다국전자상거래, 식료품, 주류, 콜드체인 등의 업무가

모여있다.

남사시험구는 지난 2015년 4월 21일에 설립됐다. 10년간 광주세관은 60개의 자주혁신 조치를 도입했는데 그중 4개의 혁신 제도는 국무원에 의해 복제, 보급되고 38개 혁신 제도는 광둥성내에서 복제, 보급되었으며 13개의 혁신 조치는 세관총서의 승인을 받았다.

세관에 등록된 남사시험구내 기업수는 4,500개를 상회한다.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015년의 748억원에서

지난해의 1,913억 6,000만원으로 1.6배 확대되며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광주세관 자유무역구및특수구역발전처 장정위(張鼎煒) 부처장은 올 1분기 남사시험구의 수출입이 634억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25.6% 늘었다면서 고표준 국제무역 허브로서의 기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주세관은 협동 감독관리를 강화해 ‘보세+’라는 산업종·신동력을 촉진하고 자동차 수입에 보세창고, 전시

거래, 보증 감면 등의 제도 통합을 도입했다. 광주세관은 2015년부터 보세 임대사업을 시작, 현재 100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했으며 수입 화물의 가치는 약 1,000억원에 달한다.

광주세관은 앞으로 자유무역시험구 발전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항구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대외무역 광적·질적 향상 등 주요 업무에 집중해 남사시험구의 고수준 개방 및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 신화넷

상해 쇼핑몰에 ‘스마트 골드 스토어’ 도입

최근 금 회수·구매 기능을 갖춘 ‘스마트 골드 스토어’가 상해 쇼핑몰에 등장했다. 그중 ‘스마트 금 회수’ 시스템은 사용자가 투입한 금의 무게와 순도를 자동적으로 측정해 실시간 금값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어 금 회수 분야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5일 상해시 보타(普陀)구의 한 쇼핑몰내 ‘스마트 골드 스토어’에서 시민이 셀프 금 구매 설비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图说
核心价值观

富 民 文 明 和 谐 自 由 公 平 法 治 爱 国 敬 诚 友 善
强 主 明 谐 由 等 正 治 国 业 信 善

诚信是福

山西运城 李惠芳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